

제2회 베트남 K-푸드 요리경연대회 성료



K-푸드문화연구소가 참여한 '제2회 베트남 K-푸드 요리경연대회 및 K-컬처 페스티벌'이 지난 29~30일 베트남 호치민시 반랑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사진> 올해 행사는 호치민 내 16개 대학의 한국어 과 및 한국어 동아리 대학생들이 참여해 총 5000여 명이 현장을 찾으며 전년 대비 더욱 확대된 규모를 보였다.

이번 대회는 2024년 흥방국제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행사에 이은 두 번째 개최로, K-푸드 문화연구소 대표 조지현 박사가 공식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행사장에는 베트남 정·관계 인사와 16개 대학 총장들이 대거 참석해 베트남 내 K-푸드와 K-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대, 광주중국학교 학부모 한국어 교육 개강



광주대학교는 최근 광주중국학교에서 '2025 광주중국학교 학부모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강식을 열고 10주 과정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사진> 광주 지역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의 실생활 한국어 능력 향상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과정은 광주대 교수진과 대학원생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개강식에는 AI양트십대학 박일우 학장, 김윤희 부학장, 김현아 교수 등이 참석했다. AI양트십대학 이매리 교수는 자화상 그리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탐색하도록 돕고 아동학과 진재섭 교수는 한국어 읽기 지도를 맡아 자녀 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소현 화순전남대병원 연구원

질병관리청장 표창



화순전남대병원 인체유래물은행 김소현 연구원이 인체자원 관리와 연구 지원 분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 <사진> 김 연구원은 2008년 인체자원은행 사업 초기부터 17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하며 인체자원 수집·품질관리·연구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노력해 왔다.

김 연구원은 근무기간 동안 4만여 건의 암 환자 검체와 임상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인체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연구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데이터 관리 담당자로서 KBN CDM 3.0 기준에 맞춰 수천 건의 임상정보를 정비해 연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원 환경을 유지해 왔다.

/서승원 기자 swseo@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희망풍차꾸러미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25일 (사)대한노인회광주시연합회에 희망풍차꾸러미 400세트를 전달했다. <사진> 희망풍차꾸러미는 즉석밥, 컵라면, 즉석카레 등 11종 부식세트로 구성돼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희망풍차는 광주시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2998가구에 전달됐다. 희망풍차꾸러미 전달 사업은 2025년 대한적십자사 중점 활동인 치매안심 프로그램 '기적'과 다문화이주민 프로그램 'All Together'와도 연계해 영화, 다문화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고길석 광주센트럴병원장, 조선대에 발전기금 1억원



광주센트럴병원 고길석 대표원장이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하며 글로벌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든든한 아침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더했다. <사진> 조선대는 지난 1일 본관 2층 정충어류에서 '광주센트럴병원 고길석 대표원장 발전기금 기부식'을 개최했다. 이날 고길석 대표원장은 조선대학교에 글로벌대학으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발전기금 9000만 원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금 1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는 기존에 기부한 30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후원이다.

고길석 대표원장은 "내년 개교 80주년을 맞

는 뜻깊은 시기, 조선대의 설립정신을 잇는 마음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문결 전남대 물리학과 교수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참여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문결<사진> 교수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국가 전략분야인 양자센싱 연구를 본격적으로 이끌게 됐다. 이번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T)이 주관하며, '원자 기반 항법용 양자 자이로 및 가속도 센서 개발'을 목표로 2025년 10월부터 2032년 12월까지 총 2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문 교수는 이번 사업 외에도 국방 분야 양자센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초정밀 양자 계측 센서 특화연구실(2023~2028) ▲국방 양자 컴퓨팅&센싱 기술연구(2023~2029) 등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원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BS1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신이 축복한 장수 계곡, 혼자 -지옥길 트레킹, 페리 데도우> 07:00 꼬마마법사 주니토니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레인보우 버블잼 08:00 땃똥똥 땃똥똥 08:20 수상한 방송국 08:50 메탈카드봇 S 강철의 귀환 09:2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붐 09:4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왔다! 내 손주(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사와 곰 15:55 블랙스 16:10 땃똥똥 땃똥똥 16:30 수상한 방송국(재) 17:00 페퍼 피그 17:10 도로리 문화센터	17:40 티시태시와 춤추고 노래해요! 17:50 풀비와 하트희의 직장속극 18:10 EBS 뉴스 18:30 건축탐구 - 집 19:20 고향민국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세계테마기행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키르기스스탄 -국경의 남쪽, 페르가나> 21:35 한국기행 〈지금, 이 순간 화양연화 3부 비랍의 전설과 오빠 부대> 21:55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22:45 PD로그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MBC 뉴스특보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친밀한 리플리(재)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 팔도밥상 스페셜(재) 30 인간극장 스페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	10 KBS 대기획 트랜스휴먼 초인류가 온다(재)	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45 주니토니 이야기(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슈퍼트론 2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2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보석이네 건강 수다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10 어린이동물티비(재) 40 국가유산순례 드오(재) 45 팔도밥상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캐리아 학교 가자(재)	55 기본 좋은 날(재)	00 닥터 365 05 영민씨와 대단한 친구들(재) 50 닥터 365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영상앨범 산(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따매	00 Why? 15 김지 아일랜드 30 골쟁 영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0 개리와 친구들(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00 생방송 투데이 5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엘로뮤지페스티벌 〈2025 고흥유자축제 축하쇼〉	50 친밀한 리플리	05 태양을 삼킨 여자 40 특집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특집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배달왔수다	00 알바로 바캉스	00 키스는 괜히 해서!			
[10]	00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 특집다큐〉 50 KBS 뉴스라인W		30 라디오스타	20 골 때리는 녀석들 -레전드 한일전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0 마지막 썸머(재)					
[12]	00 KBS 중계식 서울시오페라단 오페라 아이다	25 아이 러브 스포츠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5 MBC 뉴스 25 35 웰컴 투 스포츠	00 골렘랜드 스페셜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3일(음 10월 14일 丙午)

☎ 010-9790-8237

子

36년생 여러 사람들로부터 각광 받게 되는 날이다. 48년생 조건이 양호하니 자신감 있게 추진해도 된다. 60년생 사립 귀정과 인과응보의 근본적 철칙에서 한 치도 벗어나야 없음을 깨닫게 된다. 72년생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84년생 다 양하게 세분되면서 체계가 서리라. 96년생 실속이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74

丑

37년생 지나치다 보면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49년생 생 전후 사정과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61년생 소중히 여겨 왔던 것으로부터 얻는 바가 있으리라. 73년생 실효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85년생 차질이 없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97년생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5, 77

寅

38년생 가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지향하는 것이 좋다. 50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는다. 62년생 해결점을 찾으면서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벗어나는 판세에 놓인다. 74년생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가변적이다. 86년생 통일된 시각과 집중함이 형세를 굳히리라. 98년생 가타이 잡히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44, 53

卯

39년생 혼동하기 쉬우니 아는 길도 물어서 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51년생 부작용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된다. 63년생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주도면밀해야 할 것이다. 75년생 참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니라. 87년생 변화는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것이다. 99년생 공들여 왔던 것에 희망의 싹이 틈다. 행운의 숫자 : 40, 57

辰

40년생 긍정적인 마인드와 결단성 있는 진행이 성사로 이끌 것이다. 52년생 중요한 에기를 우연히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리라. 64년생 일관성 있는 진행만이 결실을 이룰 것이다. 76년생 명철한 사고가 유익한 활동을 유도하리라. 88년생 입지가 넓어지고 활발해지는 운로이니라. 00년생 예상이 빗나가 버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2, 58

巳

41년생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자. 53년생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것이다. 65년생 솔선수범한다면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다. 77년생 일도 양단할 수 있는 합리적 조지들이 절실한 때이다. 89년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01년생 무르익어 가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6, 97

午

42년생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타인에게는 필요로 할 수 있다. 54년생 희망의 징후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기대해도 된다. 66년생 처지와 정황을 감안하여 처신하는 것이 관계를 지휘하는데 도움이 된다. 78년생 신속한 대응 조치가 절실한 때이다. 90년생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라다. 02년생 참는 것이 곧 덕이니라. 행운의 숫자 : 05, 87

未

43년생 마음의 문을 연 만큼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반응하리라. 55년생 정세의 변화가 급격하여 결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67년생 무난하게 통과하게 될 것이니 경정할 필요 없다. 79년생 위안을 주는 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 91년생 편리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03년생 자제할 알지 못한다면 나서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0, 88

申

44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행통하리라. 56년생 정답은 의외로 쉽게 찾아질 것이니 노파심이나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 68년생 내용이 알찬 만큼 포장까지 깔끔하다면 금상첨화이니라. 80년생 배분과 할애를 절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92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자. 04년생 오늘의 고생은 미래의 행운을 부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65

酉

45년생 긍정적인 사고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리라. 57년생 완벽을 꾀하다가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운 꼴이 될 수도 있겠다. 69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첫발을 내디딜 것이다. 81년생 선별된 언어 구사를 하는 것이 맞다. 93년생 가까이 다가오는 이가 보이나 인연이 박하다. 05년생 불변하다면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11, 64

戌

46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아쉽다. 58년생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만사가 틀어지거나 망설하리라. 70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코다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2년생 결실을 원하여 두고 있으니 수확할 채비를 하라. 94년생 얻는 바가 많고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06년생 애타게 기다릴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5, 85

亥

47년생 빨리 끓는 물이 쉽게 식는 법임을 알고 의연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59년생 체면 차리지 말고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이니라. 71년생 유독 빼어난 것이 보이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83년생 변화에 상응히 영향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95년생 낯선 이와 상경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07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자. 행운의 숫자 : 48, 50

EBS1		12월 3일(음 10월 14일 丙午)		☎ 010-9790-8237	
子	36년생 여러 사람들로부터 각광 받게 되는 날이다. 48년생 조건이 양호하니 자신감 있게 추진해도 된다. 60년생 사필귀정과 인과응보의 근본적 철학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72년생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84년생 다 양하게 세분되면서 체계가 서리라. 96년생 실속이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74	午	42년생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타인에게는 필요로 할 수 있다. 54년생 희망의 장후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기대해도 된다. 66년생 처지와 정황을 감안하여 처신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78년생 신속한 대응 조치를 절실한 때이다. 90년생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로다. 02년생 잡는 것이 곧 덕이니라. 행운의 숫자 : 05, 87	未	43년생 마음의 문을 연 만큼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반응하라. 55년생 정세의 변화가 급격하여 결함이 가까워지고 있다. 67년생 무난하게 통과하게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79년생 위안을 주는 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 91년생 편리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03년생 자제히 알지 못한다면 나서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0, 88
	37년생 지나치다 보면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49년생 전후 사정과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 61년생 소중히 여겨 왔던 것으로부터 얻는 바가 있으리라. 73년생 실리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85년생 차질이 없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97년생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5, 77		44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형통하리라. 56년생 정답은 의외로 쉽게 찾아질 것이니 노파심이나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68년생 내용이 알찬 만큼 포장까지 깔끔하다면 금상첨화이니라. 80년생 배본과 할애를 잘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92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자. 04년생 오늘의 고생은 미래의 행운을 부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65		45년생 긍정적인 사고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리라. 57년생 완벽을 꾀하다가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운 꼴이 될 수도 있겠다. 69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첫발을 내디딜 것이다. 81년생 선별된 언어 구사를 하는 것이 맞다. 93년생 가까이 다가오는 이가 보이나 인연이 박하다. 05년생 불행하다면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11, 64
丑	38년생 가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지향하는 것이 옳다. 50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는다. 62년생 해결점을 찾으면서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벗어나는 판세에 놓인다. 74년생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가변적이다. 86년생 통일된 시각과 진중함이 형세를 굳히리라. 98년생 가닥이 잡히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44, 53	寅	46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아쉽다. 58년생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만사가 틀어지거나 망설하리라. 70년생 쉽게 보았다는 큰코다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2년생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수확할 재배를 하라. 94년생 얻는 바가 많고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06년생 애타계 기다릴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5, 85	酉	47년생 빨리 끓는 물이 쉽게 식는 법임을 알고 의연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59년생 체면 차리지 말고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이니라. 71년생 유독 빼어난 것이 보이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83년생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겠다. 95년생 낯선 이와 상면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07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자. 행운의 숫자 : 48, 50
	39년생 혼동하기 쉬우니 아는 길도 물어서 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51년생 부작용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된다. 63년생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주도면밀해야 할 것이다. 75년생 참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니라. 87년생 변화는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것이다. 99년생 공물여 왔던 것에 희망의 뜻이 든다. 행운의 숫자 : 40, 57		48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아쉽다. 60년생 중요한 얘기를 우연히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리라. 72년생 일관성 있는 진행만이 결실을 이룰 것이다. 84년생 명징한 사고가 유익한 활동을 유도하리라. 96년생 입지가 넓어지고 활발해지는 운로이니라. 08년생 예상치 못한 바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2, 58		49년생 자제함으로써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자. 53년생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것이다. 65년생 술선수범한다면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다. 77년생 일도 양단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들이 절실한 때이다. 89년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01년생 무르익어 가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6, 97
卯	40년생 긍정적인 마인드와 결단성 있는 진행이 성사로 이끌 것이다. 52년생 중요한 얘기를 우연히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리라. 64년생 일관성 있는 진행만이 결실을 이룰 것이다. 76년생 명징한 사고가 유익한 활동을 유도하리라. 88년생 입지가 넓어지고 활발해지는 운로이니라. 00년생 예상치 못한 바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2, 58	辰	50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아쉽다. 62년생 중요한 얘기를 우연히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리라. 74년생 명징한 사고가 유익한 활동을 유도하리라. 86년생 입지가 넓어지고 활발해지는 운로이니라. 98년생 가닥이 잡히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44, 53	巳	51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아쉽다. 63년생 중요한 얘기를 우연히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리라. 75년생 명징한 사고가 유익한 활동을 유도하리라. 87년생 입지가 넓어지고 활발해지는 운로이니라. 99년생 가닥이 잡히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44, 53
	41년생 자제함으로써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자. 53년생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것이다. 65년생 술선수범한다면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다. 77년생 일도 양단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들이 절실한 때이다. 89년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01년생 무르익어 가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6, 97		52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아쉽다. 64년생 중요한 얘기를 우연히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리라. 76년생 명징한 사고가 유익한 활동을 유도하리라. 88년생 입지가 넓어지고 활발해지는 운로이니라. 98년생 가닥이 잡히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44, 53		53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아쉽다. 65년생 중요한 얘기를 우연히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리라. 77년생 명징한 사고가 유익한 활동을 유도하리라. 89년생 입지가 넓어지고 활발해지는 운로이니라. 99년생 가닥이 잡히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44, 53